

## 중국에 합작공장 추진

무림, 종이수출 확대로

무림제지(대표 이동욱)가 중국 상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종이 및 플랜트 수출과 합작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중국시장 진출을 크게 강화한다.

이 회사는 중국내 종이수요가 꾸준히 늘어 앞으로 최대 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 상해사무소를 설치키로 하고 개설에 따른 승인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달에 문을 열고 사업을 시작키로 했다.

이 회사는 우선 중국시장에 대한 종이수출을 확대, 올해 목표를 6,500만 달러로 책정해 지난해 4,300만 달러보다 50% 가량 늘려잡고 인쇄용지와 판지공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위해 상반기중 상해와 북경에서 대규모 제품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또 제지플랜트 수출과 중국내 합작공장 건설에도 나서는 등 중국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플랜트 수출선과 투자지역 등 구체적인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무림제지는 지난해 홍콩에 사무소를 개설, 중국진출 교두보로 활용해 왔으나 중국의 1인당 종이소비량이 아직 한국의 8분의1 수준이어서 시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무림제지는 신무림제지, 세림제지 등을 계열사로 거느린 종합 제지업체이다.

## 무림그룹, 동해펄프 최대 주주로 부상

남한제지 보유분 신탁은행에 대물변제

무림그룹이 동해펄프의 최대 주주로 부상했다.

업계에 따르면 동해펄프는 그동안 계성그룹이 최대 주주였으나 계성제지 계열의 남한제지(법정관리 신청중)가 동해펄프 보유주식을 채권자인 신탁은행에 대물변제 형식으로 넘김에 따라 무림그룹이 대주주로 부상하게 됐다.

계성그룹의 계성제지, 남한제지, 성부실업 등 3개사는 동해펄프주식 954만주 가운데 21.1%인 2백1만3천주를 갖고 있었으나 남한제지 보유분 92만6천주를 신탁은행에 넘겨 지분이 11.5%로 낮아졌다.

반면 신무림제지, 무림제지, 세림제지 등 무림그룹은 16.4%인 156만주를 보유하고 있어 종전 2대주주에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국내 유일의 표백화학 펄프업체인 동해펄프는 74년 정부 출자로 설립됐다가 87년 민영화 과정에서 제지업체 17개사

가 인수해 운영해 왔다.

제지업체는 그동안 대주주인 계성그룹과 무림그룹이 공동으로 동해펄프의 경영권을 행사해 왔으나 계성제지의 법정관리 신청과 지분양도로 무림그룹이 경영권 행사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해펄프는 계성그룹이 추천한 김낙서 사장과 무림그룹이 추천한 심영섭 부사장의 공동대표체제를 유지해 오다 지난 2월말 주총에서 김사장이 퇴진, 심부사장의 단독 대표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제지업계 해외조림지역 다변화

환경보호 차원 각국 규제영향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일부지역에 편중돼 있는 국내 기업들의 산림개발, 조림사업 지역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주요 산림보유국들이 자국의 자원보존과 환경보호차원에서 벌채를 규제함에 따라 안정적인 목재 및 관련 가공제품의 도입선 다변화가 절실히 제기기 때문이다.

산림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1년까지 동남아시아 지역 산림개발에 15개 업체가 진출, 지역이 한정됐으나 이후 (주)대우가 미얀마에, 동화상협이 캄보디아에, 세양코스모와 대동주택건설이 각각 베트남에 진출해 진출국가가 5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밖에 코스모자원이 92년 파푸아뉴기니에, 한솔종합임산이 호주 서부지역에, 이견산업이 93년 칠레에 각각 진출했으며, (주)선경이 가이아나에 92년 진출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국내업체들의 해외 산림개발, 조림 및 각종 목제품 생산공장 진출은 모두 13개국으로 늘어났다.

(주)대우는 미얀마 중부 SWA지역에 국내 삼원실업과 함께 총투자규모 540만달러중 55%를, 나머지는 미얀마측이 각각 투자, 91년부터 20년동안 매년 245만매(22,000입방m)의 다양한 규격의 합판을 생산중이다.

동화상협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지역에 약 200만달러를 단독투자, 제재목 공장을 건설하고 연간 24,000입방m 목재를 가공, 절반이상을 국내에 반입할 예정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세양코스모는 호치민시 인근 15,000ha 규모의 임지에 조림사업을 벌이고 칩공장을 건설한다. 전체 270만달러 투자규모중 82%의 지분을 갖고 연간 칩을 196,000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대동주택건설은 베트남 남부 동라이성에 280만달러를 단

독투자해 합판공장을 건설, 연간 36만매(13,000입방m)의 합판을 생산, 70% 이상을 국내에 반입키로 하고 현재 한국은행 투자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주)선경은 지난 92년 산림청으로부터 전체투자액 5,400만달러중 20%를 투자하는 가이아나에서의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가이아나 북서부지역 조지타운에 합판공장을, 북쪽에 167만ha규모의 임지개발에 나섰다. (주)선경은 연간 1,823만매의 합판을 생산할 계획이다.

한솔종합임산과 이건설산업은 93년 투자인가를 받고 호주 퍼드지역과 칠레 테무코지역의 라우타로에 각각 진출했다.

##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제조업체 압박

세계 경제 회복으로 펄프 등 4개월째 오름세

국제원자재 가격이 세계경제의 회복추세에 따라 지난해 11월을 바닥으로 4개월째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국내 제조업체들이 원가상승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대리점협회가 발표한 '3월중 주요 수입원자재 오퍼가격 동향'에 따르면 석유수출기구의 감산합의의 실패로 원유가격이 지속 하락한 외에 원목을 비롯, 커피, 천연고무, 스틸렌, 알루미늄 등의 시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따라 이 협회가 산정하는 국제원자재 가격지수(AFTAK지수, 90년12월=100)는 작년 11월 77.9를 바닥으로 3월에는 80.86으로 올랐다.

정부는 이에따른 물가압박을 우려, 원면, 원당, 천연고무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는 주요 원자재의 할당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펄프=생산국의 벌채규모가 강화됨에 따라 표백화합펄프의 경우 지난 11월 톤당 320달러에서 올 3월엔 430달러로 올랐다.

이러한 추세로 볼때 연말에는 530달러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동안 적자상태이던 펄프업체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제지업계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천연고무=산지의 공급량 감소와 구매수요의 증가로 지난해 12월 톤당 843달러를 보이던 천연고무 가격이 올들어 2월엔 913달러, 3월엔 995달러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알루미늄=생산국들의 감산, 미국의 수요확대로 지난해말 톤당 1,152달러에서 오름세를 지속, 올3월에는 1,373달러까

지 회복되고 있다.

## 일에 기저귀 기계 발주

대한, 내년부터 양산 돌입

대한펄프(대표 최병민)가 최근 종이기저귀 설비확장에 나서 이 제품 생산기계를 발주했다.

대한펄프 관계자는 지난달 일본 동아기공에 기저귀 생산기계 1대를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 설비 가격은 약 50억원대로 알려지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설비를 인수, 청주공장에 라인을 깔고 내년초부터 상업생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새 설비로 상업생산에 나설 경우 월 1천2백만개까지 생산이 가능, 라인설치후 기저귀 생산량은 최근 월 2천만개 선에서 3천만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한펄프는 현재 기저귀 생산기계 2대와 생리대 생산기계 3대를 보유, 가동하고 있다.

대한펄프는 이번 기저귀 생산기계 발주에 이어 생리대 부문도 증설한다는 방침에 따라 발주에 나설 계획이며 화장지 생산능력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인쇄용지가격 또다시 인상

국제펄프가 톤당 430달러로

백상지와 아트지를 중심으로 인쇄용지가 92년10월에 이어 지난달 1일부터 10%가 인상돼 인쇄업계의 자금난과 용지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제지업계에 따르면 국제 펄프가의 급등과 재고량이 감소돼 각 제조사별로 10%정도를 인상했다.

공급과잉에 따라 덤핑판매를 해온 바 있는 제지업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과 동남아에 수출물량이 대폭 늘어나 92년보다 재고량이 40%정도 줄었다.

또 국제 펄프가가 지난해말까지도만 해도 톤당 380달러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올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2월말 현재 430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쇄업계는 봄, 가을 등 성수기때만 되면 슬그머니 용지값을 인상하는 것은 인쇄기준요금 동결과 물량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업계에 또하나의 짐을 안겨주는 처사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 아성유리공업 법정관리

매출부진으로 경영압박

중견 유리그릇 제조업체인 아성유리공업(주)(대표이사 이홍갑)이 지난달 2일 서울 민사지법에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신청서에서 "인건비 상승, 매출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된데다 금융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자금사정이 나빠지는 등 파탄상태에 직면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79년6월 설립된 이 회사는 자동화시설 등으로 81짜리 대형유리병 등을 생산해 왔으나 최근 대리점의 잇따른 부도로 경영난에 빠졌다.

지난 1월말 현재 이 회사의 자산은 204억여원이며 부채규모는 115억원에 달하고 있다.

## 해외유화업체 현장직무교육 실시

대림산업, 중국·태국 등 요청으로

대림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성기웅)는 지난 2월부터 동사 여천공장에서 중국 및 태국의 유화업체 요청에 의해 이들 업체로부터 파견된 기술자 56명에게 공장운전, 정비, 안전, 실험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90년 말부터 2년6개월에 걸쳐 삼성, 현대 등 국내 6개 나프타분해공장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공장가동을 앞두고 이들회사 기술요원 300여명에게 현장 직무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이번에 대림이 실시한 현장 직무교육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8일까지 4주에 걸쳐 여천공장에서 중국 내륙지방에 위치한 신강 위구르자치구 고산자에틸렌컴플렉스의 기술요원 35명을 대상으로 에틸렌 공장의 운전, 정비 등에 관해 실시했다.

고산자에틸렌컴플렉스는 에틸렌을 연산 14만톤 생산할 수 있는 공장 및 LLDPE, PP, EO/G, SM공장 등을 건설중이며 내년 5월경에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태국 폴리에틸렌사의 기술요원에 대한 현장직무교육은 지난달 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0주에 걸쳐 각 부문별로 모두 21명이 여천공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태국 폴리에틸렌사는 라용 석유화학단지에 위치한 연산 7만5천톤 규모의 LDPE공장을 건설중에 있으며 올해 8월 완공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대림과 동일한 생산공정(영국 SIMON-CARVES)을 채택한 공장으로 LDPE공장의 운전, 정비, 안

전, 실험 및 기술지원 등 5개 부문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대림은 국제적 규모의 석유화학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화학업체로 79년 공장을 완공한 이래 안정적인 가동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자체공정개선 등을 통해 공장효율 및 설비능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등 기술개발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기술력이 선진공업국의 경쟁업체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림은 이번 국내 유화업체에 이어 해외 유화업체들의 요청에 의해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해외 공장 등에도 기술인력을 파견함으로써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 화장품 리필제품 개발활기

립스틱·기초화장품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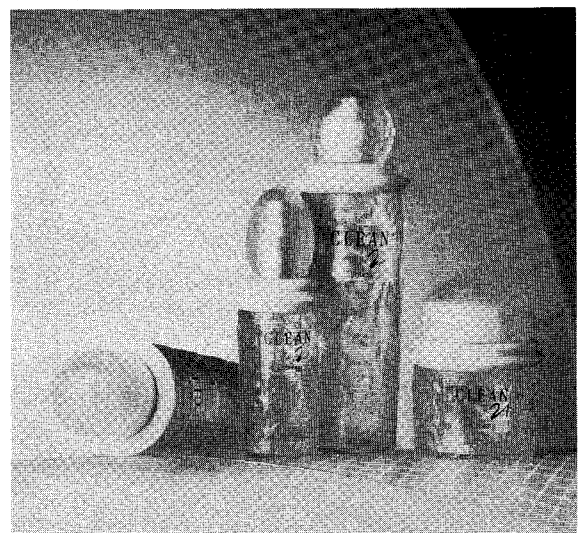
자원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이 외형보다는 실리위주의 구매를 선호함에 따라 화장품업체가 한번 쓴 용기를 다시 사용하는 리필제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지금까지 리필제품은 투웨이 케이크와 같은 컴팩트류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립스틱, 헤어스프레이, 기초화장품 등으로 리필화가 확대돼 리필품목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화장품은 최근 국내 화장품업체로는 처음으로 기초화장품을 리필화한 신제품 '쥬단학 크린21' 4종을 개발,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한국화장품이 이번에 리필제품으로 선보이는 크린21은 플라스틱의 본체와 리필용기를 구분, 본체에 교체용 리필제품

▼한국화장품이 리필용기로 선보인 '크린21'



을 갈아끼워 사용하게 했다.

한국화장품측은 기초화장품의 경우 기존 용기에 내용물만을 담아 사용하는 식의 재활용은 용기세척과 소독이 어렵기 때문에 플라스틱 리필용기를 본체에 바꿔 끼우는 방식의 준리필제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스킨로션, 로션에센스, 크림 등 모두 4개품목의 기초화장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리필제품은 정품보다 25%정도 저렴하다.

피어리스는 최근 아르보아 브랜드의 색조화장품을 선보이면서 전품목을 리필용으로 내놓았다.

특히 립스틱에 리필을 적용함으로써 립스틱을 다쓴후 원하는 색의 내용물만 구입해 기존 용기에 끼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제일제당도 내용물만 구입해 용기에 넣어 사용할 수 있는 헤어스프레이 '에어스프레이 슈슈'를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

## '주간 고충상담의 날' 운영

럭키, 신리·근로의욕 고취

럭키석유화학(대표 이정호)은 현장의 전사원을 대상으로 제반 고충사항을 해결한다는 취지아래 '주간 고충상담의 날'을 운영, 눈길을 끌고 있다.

고충상담 내용은 ▲인사 복리후생 및 급여에 대한 사항 ▲근로조건 작업환경 및 보건위생에 대한 사항 ▲조직내 또는 조직간 갈등 및 인간관계에 관한 사항 ▲기타 개인의 신상 및 회사와 관련된 고충사항 등이다.

럭키석유화학은 상호신뢰의 풍토를 조성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해 일체감 조성을 통한 공장의 안정조업 및 비전의 조기 실현을 달성한다는 방침아래 이를 실행하고 있다.

주간 고충상담의 날 운영은 매주 화요일 오후 3~5시이며 고충상담위원은 관리담당, 공무담당, HDPE담당 부공장장 등 3명으로 매주 순번제로 한다.

럭키석유화학은 고충상담자의 신분 및 상담내용을 절대 비밀로 보장하는 한편 제기된 고충은 신속하게 처리해 당사자에게 알려주며 고충상담 및 처리실적을 정리해 분기별로 공장장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밖에 상식적인 고충상담을 위해 고충상담용 전화도 설치했다.

## 대기업 환경산업진출 활발

GR대비 소각로사업 등 확대

그린라운드에 대비, 대기업의 환경산업 분야에 대한 진출이 최근들어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최근 ISO18000시리즈로 명명되는 국제환경규격의 채택을 추진하는 등 그린라운드 태동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면서 동부그룹과 대형 건설사 등 대기업의 환경산업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제지·의류업체까지 이 분야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소각로사업의 경우 정부가 최근 폐기물처리 방식을 매립에서 소각위주로 전환기로 함에 따라 삼성·대우·동부·두산·벽산·쌍용 등 대형 건설사가 최근들어 하루 100~2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 소각로 생산을 추진중이다.

동부그룹은 그룹차원에서 환경사업을 벌인다는 방침아래 동부건설·화학·제강 등 3사를 중심으로 환경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12월 안양 평촌에 하루 200톤의 생활쓰레기 소각로를 완성한데 이어 대형 소각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탈황설비 등 대기환경방지 분야와 고도정수처리 등 수처리분야의 신규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모피의류 제조회사인 진도는 경기도 시화공단에 20,000평 규모의 환경설비 생산공장 부지를 마련한데 이어 일본 NKK사와 소각기술에 관한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한솔제지는 그동안 폐수·중이찌꺼기 등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축적한 자체 환경기술을 한차원 높여 연초에 환경사업팀을 구성하고 외부 수주활동을 벌이고 있다.

## 동양제과 중국시장 진출

중미합작사와 공동으로

동양제과가 중·미합작 회사와 합작투자자로 중국시장에 진출한다.

동양제과는 중국 흑룡강성 민족경제개발회사와 미국 BK그룹의 합작회사인 하얼빈B'&'J식품유한공사(흑룡강성 하얼빈시 소재)와 합작으로 '하얼빈B'&'J동양식품유한공사'를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합작회사의 자본금은 4백76만1천2백달러이며 동양제과는 이 가운데 35%인 1백66만6천4백달러를, 미국 BK그룹이 35%, 민족경제개발회사가 30%를 각각 투자한다.

생산제품은 스낵가공식품 및 기타 제과류, 강냉이 통조림,

조미료, 고춧가루, 간식식품 등이며 절임냉동, 건야채어류가공, 해산물가공 및 도소매업도 영위한다.

동양은 스낵생산설비를 제공하고 기술 및 상표사용과 관련, 하얼빈B'&'J식품유한공사로부터 제품출하액의 1%(오징어땅콩에 한정, 다른 제품은 추후 협의)를 로열티로 지급 받는다.

### 플라스틱가공기기전 성황리 폐막

6개국 64개업체서 관련제품 전시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협동조합(이사장 윤유중)이 주최한 '94서울 국제플라스틱가공기기전이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올림픽공원 한얼광장에서 열렸다.

국내외의 우수한 플라스틱, 고무의 원료, 제품 및 가공기계류의 품질 및 기술력을 널리 홍보하여 수요의 창출과 수출을 증대시키고 신기술의 비교 전시를 통한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이번 전시회는 6개국 64개사가 5,021개 품목을 전시했다.

이번에 출품된 품목을 보면 원료 및 신소재에서 합성수지류, 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고무, 실리콘, 고분자 재료, 복합재료, 반도체 등 관련소재, 제품 및 반제품에서 건축, 기계, 전자, 전기, 자동차, 화학 등 각 분야에 적용되는 플라스틱 및 고무관련제품 소재, 가공기계 및 기기에서 사출성형기, 압출기, 진공성형기, 블로우몰딩기, 합리화기기, 자동화기기, 금형, 분쇄기, 재생, 열기공기, 포장기계, 건조기, 인쇄기, 기타 공해방지, 화공약품 등 관련서적, 관련 서비스업 등이 전시됐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돔형 에어백을 설치, 눈길을 끌었으며 전시기간에는 (주)트리코상사(대표이사 김완희)가 '3-D Blow Molding soft-hard-soft blow molding'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기도 했다.

주최측은 "앞으로 이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행사로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가업체와 참관자들은 이번 행사가 국내외의 기술을 비교하고 동향 파악 및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 인쇄출판지가공 전시회

GMC '94 밀라노서 개최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GMC

94(인쇄출판지가공 전시회)가 개최된다.

7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이 전시회는 이 분야의 세계 5대 전시회의 하나이다.

이번 전시회의 주요 전시품목은 ▲사진재현 기자재 ▲폼 제작용 사진조판 기자재 ▲DTP시스템 ▲경질·골판지용 인쇄 및 가공기자재 ▲라벨기 ▲특수 인쇄기기 ▲연속 품기계 ▲기타 인쇄 및 가공기계 ▲제책기계 등이다.

### 선일포도당 창립30주년

한마음 행사와 초청공연 가져

삼양그룹 계열사인 선일포도당(대표 김경환)이 지난달 3일 창립30주년을 맞았다.

이 회사는 이날 인천공장에서 창립30주년기념 "한마음 큰 잔치" 행사를 열고 장기근속사원 51명에 대한 포상 및 에어로빅시범 초청공연 등을 가졌다.

지난 64년 설립된 선일포도당은 인천 및 울산공장에서 포도당, 과당, 전분, 물엿, 솔비톨, 올리고당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82년 국내 전분당업계 처음으로 기술연구소를 설립, 생분해성 필름개발에 성공하는 등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 회사는 93년 대덕연구단지에 선일연구소를 건설, 전문 연구인력을 늘리고 있으며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에도 진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선일포도당 창립기념일 기념행사 장면

### 롯데 사업본부장으로 개편

사업효율성 높이는 일환

롯데알미늄(대표이사 하태준)이 직제를 사업부서별 본부장

제로 개편하는 조직구성을 마쳤다.

롯데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제를 본부장제로 개편하고 올해부터 생산에 들어가는 캔사업을 신설했다.

이번에 개편한 내용을 보면 알루미늄사업 본부장에 고충준 전무, 가공사업 본부장 김영제 전무, 제관사업 본부장 주우열 상무, 기획본부 본부장 황장연 이사, 관리본부 본부장 이구수 이사, 기획실장에 김용진 이사를 4월1일자로 발령했다.

또한 마케팅부를 해체하고 장상호 과장을 외자과로 발령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 은성기계공업으로 상호 변경

홍우통산 인수, 사업 시작

은성기계공업(주)(대표이사 정인택)이 포장기계 및 자동화 설비업체인 홍우통산을 인수하여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지난 88년 홍우통산이란 상호로 영업을 하던 포장기계 제작업체가 열악한 환경과 기술, 고급인력 및 자금부족 등으로 경영이 부실화 되자 (주)은성인터내셔널이 회사를 인수, 내부혁신과 거래선 신용회복, 품질과 생산성 향상 등 사업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은성기계공업은 회사의 인수와 함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소재의 공장을 충남 천안시 백석동 농공단지내의 대지 1,000평, 건평 600평에 기숙사, 식당, 농구장 등의 복지시설을 갖춘 자체 공장을 마련하고 이전했다.

이 회사는 상호를 홍우통산(주)에서 은성기계로 변경하는 한편 그동안 방만한 경영과 나태한 임직원을 대거 퇴진시키는 등 기술력 향상을 위해 엔지니어를 새로 채용하고 관리 효율성의 극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영입하는 등 품질과 생

▼은성기계가 충남 천안에 마련한 자체공장 전경



산성 향상에 투자해 왔다.

연간 매출규모 100억원대인 은성인터내셔널은 이번 홍우통산의 인수를 계기로 올해 매출목표를 기계제조 60억원, 필름판매 20억원 등 모두 80억원으로 잡아놓고 있으며 회사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R&D비용 7억원, 시설투자 3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 WELDOTRON사와 기술제휴하여 웰도트론이란 상표로 국내 시장을 공략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자체 브랜드인 파워 팩으로 국내시장 및 수출에 나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동기업 인사

연포장, 공압출필름을 생산하는 유동기업(주)(대표이사 장기주)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정일 부장이 이사로 승진됐으며 강대경 이사는 동서식품 상무로 옮겼다.

### 유상공업 인사

연포장 CPP필름 전문업체인 유상공업(주)(대표이사 신동수)의 인사가 있었다.

이번 인사에서는 변재익 전무가 부사장으로, 신동호 이사가 상무이사로, 장갑순 생산1부 부장이 이사로 각각 승진했다.

### 하이남코퍼레이션 주소변경

카토너를 비롯한 포장관련기기 수입업체인 하이남코퍼레이션(대표 이태희)이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 회사는 그동안 카토너를 중심으로 한 외장포장기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보급해 왔는데 이번에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게 된 것이다.

주소: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33-2 동성빌딩 5층  
전화:(02)529-2366/8, 팩스:(02)529-2369